

태평양주보

제 1129호

5/22, 1951

서기 1959년 5월 22일
단기 4292년 5월 22일

사장	최백련
주필	김창원
발행소	동리회관내
부킹거리	93-1
대금	1년 10원
전화	850849

미소전쟁은 어떻게 어난다

외상회의 성공을 위한

「하」소련수상, 미국인과의 회담

(모스크바 20일 발에이.피.) 「하」소련수상은 19일 소련 방문중인 「하」로리다쿠마이의 신문업자. 전문가 합계 40명의 회담을 가진다. 그 내용은 20일 발표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하」수상은 미소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제네바에서 거행되고 있는 미영·분·소 4대국 외상회의는 성공한다고 예언하고 있다.

「하」수상은 소련이 미국에 먼저 「라켓트」를 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미국으로서도 전쟁을 개시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따라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한편 지금으로 부터 내년후 우리의 자존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코는 누구도 보증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여타의 손자 외의 공산주의가 권이 드러갈는지 모르니, 손자의 외에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한다.

또 「하」수상은 외상회의는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치 않겠스면 소련은 참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HAWAIIAN NEWSPAPER STACKS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소련과의 비밀회의

미영양회담 불락과 동맹

(제네바 3주일발 데이외) 3주일의 미영·불·소 외상회의 본회의에서 '허타' 대표는 독일의 부를투입을 오래 계속시키는것은 독일을 방해하는 자에게 재화를 가져올뿐이라고 말하고 소련에 대해 독일투입거부의 조치를 다시 권유하도록 호소하였다.

'허타'씨는 하나도된 독일의 국민만이 독일의 재래를 결정할수있다고 말하고 소련이 이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협력하기까지는 독일문제 구과파 안전보장문제의 해결은 있을수없다고 언명하였다.

수뇌회의 문제

또 서독일과 불락씨는 버린 회기와 수뇌회의 문제에 대해서 소련과 소극히 비밀회의의 열과 같은 미영의 열의를 불리고 있다 말한다. 비밀회의가 열리면 수뇌회의가 이번 열의 열리는지 결정되리라 하고 생각되고 있다.

동·서외상회의에 서

영·불·소·미·일·중

(제네바 3주일발 공영) 동·서외상회의의 제7회 본회의는 19일 오후 3시반 '허타' 미국부 장관이 의장으로 개회, 구브도비를 발, 불락씨, 구레체비, 서독, 로이스, 영국, 구로미코, 소련 각대표가 연설하고 동·서 3부분에 산화하였다.

이날 서구측 3국대표의 연설은 전일의 '구로미코' 연설의 대한 반론으로서 한 것으로, 소련의 대독평화조약추진은 독일에 전제무채를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로이스 수상은



(제 2면에 계속)

말하고 소련인은 동서를 대립시키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된다. 라고 구브도미콜 빌 부린의 의상은 말하였고 소련인은 벨사이유 조약을 재연하는 것이 다. 라고 구레체비 서독대표는 모두 소련인은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서 구롬미코 소련외상도 대독 평화조약 초안은 내세우고 반론 평화조약과 버린 전염체제의 종결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전제라고 소련측의 주장을 번복하였다. 동일의 도의는 트시킨 두분 이상 걸렸고 외상회의 개막 이래 최장시간이어서는는데 동서 쌍방의 모두 조래의 이념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을 선언하였고 구일 문제도 서대 토론 회를 마쳤다.

서구측의 버린권하를

소련에 확인시켜라

수외회의의 조건 서독인구

(제네바 11월 11일 밤 11시 15분) 미영분 소외상회의 11월 11일 본회의는 1시간 40분후 차회본회의를 11월 12일 오후에 열기로 하고 산화하였는데 버린 미국부장관은 그의 발언중 미국은 소련과 언젠지 일반 권비축 소외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고 세계 사람들이 서구측의 대독 평화안을 칭찬하고 소련이 동맹은 거부한데 대해서 실망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구일 문제를 산선전에서는 서구측이 승리하고 소련측이 패부하였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였다. 또 이날 본회의 개최전에 브렌라노 서독외상은 미영분 프대독에 대해서 수외회의 개최에 찬성하기전에 소련으로부터 버린 부린의 확인을 언도 요구하였다. 브렌라노 서독외상은 기자회견상 미영분은 수외회의의 조건으로서 버린의 이석서독 서구측의 현재의 권리를 소련에 확인시키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여기서 구롬미코 소련외상으로 부터 확인을 미공식적으로라도 얻을 수 있으면 수외회의



(제 3년의 계획)

의 의식서의 정식 기법정의 기초가 되고 서구권의 '버린', '주재권과 동등'을 통과하는 병합선(확보)의 천리를 수락하는 의무를 소련에 지게 된다는 것이이다.

「허」러, 「미국무장관은 평화조약전에 독일 통일일을 구하는 서구의 주장이 구라화 안전 보장달성의 장애가 된다는, 구롬미코, 소련의 상의 의론을 반복하고, 서구인이야말로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동서수비회담개최 가능성의 대담의 의박

(와싱턴 27일 발 모음) 제네바의 동서외상회의는 이미 10일은 경과하였는데 여전히 심각한 대립의 계소라고 이기 때문에, 와싱턴의 정부수외부의 의회와 외무장관이 추에서는 동서수비 회담이 이번 여름 개최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미국무성추위의 하면, 「허」러, 「미국무장관은 대일 외상회의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 전한 커대통령의 보고하고 소련이 아직 양보를 하지 안코 있어서 실망의 뜻을 전했다고 전해진다.

사적기담

제네바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허」러, 「장관은 불. 서도 양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적기담을 통한 라개채를 강구하기로 의욕하고 있는데 미국무성추위에서는 「허」러, 「장관은 금후 약 1주일간 이러한 사적기담을 통해서 소련의 진의를 타진하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외상회의를 이시정열어도 소용이 없다. 고 말할 것의 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런 외부의 보권문제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적기담을 통.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지는 안는 가하고 기대하는 편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희망적 관측도 외상회에서 전점점 약해져오는 경향이 보인다.



소련의 두기일연방안이라

서구측의 거부 미국은 소련에 경고

(제네바 20일 발해의 피) 미영분소 4대의 신. 회의의 구동미코, 소련의 신은 21일 등서 양동일과 개별적으로 평화조약은 체결하려는 소련 제안을 다시 강조하였는데 그중 서구의 군구구구의 견해를 들은 여직적(외버디) 심오한(공정)이 하였습니다. 허러, 미국부장은, 구동미코의 신에 대해서 리치에 맞지 않는 바반을 하지 말라고 정오하였습니다.

또서구측은 소련의 동일연방안은 인축하고 차제도와 소구제도를 하나로 절단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1. 델레스 전 국무장관(구도로)의 약속

지통제로 수인 주장

(와싱턴 19일 발해의 피) 전주 병세가 악화되어, 적권회의에 오는, 델레스 전 미국 부장은, 전적으로 의약되어 지통제를 써서 거의 잠만 자고 있다고 국무장관에게 발표하였습니다.

델레스 씨는, 윌러 리드의, 육군 병영에서, 아침의 치근동, 케염이 병발, 지난 15일 병세가 약화되었다고 발표된 후, 회복의 징조가 보이지 않게, 적정되어 오르는 것이다.

일부에서, 델레스 씨가, 수인상대의 이다,는 소문이 있는 것은, 미국의 대변인은, 이를 부정하고, 델레스 씨는, 다만 지통제를 말하고, 거의 자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델레스 씨의 친구들에게, 몇일 가지 못하는 구태에 노어있다고 한다. 가족은 모두, 와싱턴의 모어있다.

델레스 씨의 최고후(장사)여

(와싱턴 20일 발해의 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의 민간인의 이 발을 수이는 최고 의 영예인, 자부의 훈장을, 델레스 전 국무



(제 5면의 계속)

장관에 수여하였다. '덜레스'씨는 지난 19일, '윌리엄 리드' 부통령원에서 동석부의 의사를 통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공영이다. 케하의 공헌에 대한 나라 전체의 감사와 나 자신과의 사의를 표명하는 뜻으로 이것을 드림이다. 그리고 자국을 위해서 지명(지하)의 공적은 찬양하는 바입니다. 라고 헌부 하였다.

1954년 4월 21일 추수선교회 아랍, 연합국의 계획

(카이로 11월 11일 밤에의 회) 아랍연합공화국의 '넣센', 대통령은 11일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주 아가스 리더스'지의 편집국장, '존 케네디' 시와 회견에서, '홀시프' 소련수상이 아랍문제에 간섭치 않는다는 재보증을 하였으며, '크게일'부터 '11월 11일' 아랍연합회의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백히 하였다.

'넣센' 대통령은 이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1. '에지프트'의 혁명은 예비적인 사회 재발전의 단계로부터 정치발전의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아랍' 연합공화국의 정세로는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혼란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넣센' 부통령은 내일 모스크바의 미국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등도 중요이나 그 지로에 카이로에 들르기를 환영한다.

'이제'부터, '이로부터' '이와' '합'된 발전, '공산주의' 제국과의 '우호' 관계 강화

(카이로 11월 11일 밤, '공영') '가셈' 이라크 수상은 11월 11일 밤 '배구' 선수 '세이델리' 산정(총영)의 회합에서 연설하고, '이라크'는



(제 6면에 계속)

아이젠하워. 두트린, 으로부터 탈퇴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들은 공산주의 국가와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동양의
우리와 우호 관계를 이루는 모든 서구 제국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할 작정이다. 이 말은 어떠한 특정한 추해도 부시
안코 맞으며 여태까지 침략을 한 나라와도 가깝히 지내지 안코
왔다. 이상의 이유로 이 말은 자력으로 서. 조국을 방위할 수
있도록 금주. 아이젠하워. 두트린, 으로부터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이 말에 침략을 하는 경우. 우방국들이
모두 원조를 할 것이다. 우리들은 국가를 지키는데 충분하
세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세력을 침략 무력. 아나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쓸 작정이다.
[주] 아이젠하워. 두트린, 으. 57년의, 스페인, 운하 등 안에서
중동으로부터 영불의 세력이 후회한 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57년 1월. 의회에서 발표한 중동 정책.
이것은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에 대해서. 중동 제국이 민주
한 경우.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며. 또 이 정책을 지지하는
제국에. 군사 개입 원조를 하는 약속을 하고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노하

7월 4일 선거의 화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7월 4일 호노룰루로 온다는 소문이
향간에 흘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발표는 아직 없었다.
그러나 방송과 해설자 리차드. 하크네스는 14일 밤 방송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7월 4일을 하와이에서 지낼 예정이라고
전하는 데 백악관에서는 이를 부인하지 안코 있다.

대한국보전시회 폐막 박두

4월 15일인 시각의 여. 1개월만이나 계속되는 대한국보전시회
는 앞으로 1주일의 연계를 이나게 되는데. 아직 전시회에 참관하시
지 못한 분은 이 기회를 참관하기를 요망하고 있다.



